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피의자 중형

법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 불가능한 중범죄" 징역 15년

누명썼던 용의자 최씨, 재심 통해 무죄 선고받아 살인 누명 벗어

지난 2000년 8월에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3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재심에서 최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로 생각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등 책임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라며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형사보상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형사보상 신청을 했고, 이달 형사반장과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까지 피고로 엮어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 소년체전 33개 종목 795명 참가

금 18개 포함 88개 메달획득이 목표… 레슬링 등서 강세

전북도교육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3개 종목 795명의 선수와 470명의 임원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우리 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8개를 포함 88개의 메달획득을 목표로 참가하며 기록종목 육상, 양궁, 근대3종 체급종목 레슬링, 태권도, 유도, 역도 단체종목 핸드볼, 배구, 야구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꿈나무들의 스포츠 제전인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란 구호 아래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1만7천여 명이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등 46개 경기장에서 열띤 메달 경쟁을 펼친다.

올해 대회는 초등부 19개 종목과 중등부 35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다.

전북은 지난해 강릉에서 열린 제45회 대회에서 30개 종목에 783명이 출전해 금메달 21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46개를 획득(총81개)하였다.

/정해은 기자

바이오뷰티 소재 산업화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산하 바이오뷰티개발센터는 25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유강열 연구원장, 지역 뷰티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뷰티 소재 산업화 및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200~300만원씩 지원

완산노인복지관 등 4곳 사업대상 선정

전주시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용 위원회를 개최하고 완산노인복지관 등 4곳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원 사업 공모에는 전주시 관내 4개 노인복지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참여한 기관들의 사업의 적정성, 수행능력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200~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한다.

전주시는 지난 1999년 5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도박·폭언… 익산시청 공무원 비위 '여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감사담당관실 행감서 지적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청렴도 향상을 꾀하고 있는 시 행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청 감사담당관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감사자료 숙지 미숙과 허술한 감사를 지적했다.

송호진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성과는 있지만 반성은 없다"면서 "도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익산시가 진행한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 현황 자료에는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공무원에 대해 불문경고인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경징계를 전북도에 요구해 해임된 공무원 등이 적시돼 있다.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원인이 국가보조사업 등에 대한 불만을 항의하자 민원인에게 폭언 등을 행사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행정방침과는 역주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용균 위원장은 "감사를 강하게 해야 한다. 감사자료를 숙지하지 못하는 점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암행감찰 등으로 위법·부당한 처사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선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김제 J 중고 사학비리… 이사장 등 3명 붙잡혀

지난해 학생 입학성적 조작·학교 후원금 횡령

김제시 J 중·고등학교 이사장과 교장 등 3명이 비리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학생 입학 성적을 조작하고 학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제시 J 중·고등학교 이사장 정모(75)씨, 교장 정모(62)씨, 교무부장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 1억5000만원을 법인회계로 전용해 법인 운영비와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신분 등을 이유로 전형점수표(면접, 토론점수)를 조작해 합격권에 있던 학생 3명과 불합격권 학생 3명 순위를 바꿔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교사 길들이기'를 위해 사립학교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교사들에게 학생 관리 소홀과 지시불응 같은 사유로 교사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공정한 학사 행정과 사학재단 투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 2019년까지 397억 투입

전주시가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97억원을 투입해 금암·진북·노송동 주변 일원의 하수관로 55.3㎞를 정비하는 중앙처리구역(3·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동일관으로 배출되는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에서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 배출되는 분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중앙처리구역(3·10분구)으로, 시는 지난해 3분구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4.8㎞와 10분구인 진북동 우체국 주변 지역 4.5㎞ 정비를 마쳤다.

올해는 건산천·금암초교 부근 10㎞와 노성동 혁신센터 부근 3㎞ 구간을 정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송천동 롯데마트 부근과 덕진동 하가마을 일원, 전북대 구정문 등 14.2㎞구간에 대한 덕진·중앙(1분구) 사업과 한옥마을과 공구거리 일대 등 4.8㎞ 구간의 중앙처리구역(8·9·10분구)도 내달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148억원과 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설계중인 팔복동 금학천 일원 26.4㎞에 대한 팔복(1·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237억원 투입, 오는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20년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